

데스크칼럼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지긋지긋한(?) 직장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치열하게 주 5일을 살아내고 모처럼 쉬는 날 하루가 달콤하지만 출근 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들 다 해봤을 것이다. 이런 패턴의 생각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내내 지속된다. 몸 안에 혈액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쉬는 날 끝자락만 오면 스텝스밀 몸과 정신 속으로 파고드는 듯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출근 날 전날에 다음날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 속으로 빌었을 까 싶다.

직장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거기서 받는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커진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 스트레스는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탈이 붕괴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날은 퇴근해서 안전한 집으로 돌아왔어도 정신이 멍하다. 좀체 맨탈이 잡히지 않아 음악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듣거나, 게임을 해보거나, 호프집 귀퉁이에 앉아 훌쩍 훌쩍 무언가를 들어킨다. 또 친구에게 전화해 하소연하거나, 어두컴컴한 방 침대에 누워 멍을 때리거나, 길든 짧은 여행 혹은 마실을 가거나 등등 미덥지 않은 자구책(?)을 고안해 맨탈이 잡히고 스트레스가 풀리길 기다린다. 이런 것에 비춰 보면 직장생활은 그야말로 정글이라는 용어가 적격이다.

누군가는 이 정글을 벗어나기 위해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로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또 누군가는 투

‘파이어족의 단서’ 발견하지 않을까

잡, 쓰리잡을 하면서 미래의 달콤한 꿈을 꾀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정답은 없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다. 필자는 재주가 없어 직장만 다니고 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이들에 비하면 필자에게 파이어족은 잔작 물 건너 갔다. 여기서 파이어(FIRE)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다.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려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직장생활을 짧게 하는 대신, 수입을 많이 늘려 남들이 30~40년 직장생활을 해서 모아야 할 돈을 10~20년 안에 다 모으고, 직장으로부터 해방돼 나머지 세월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모든 것을 조기에 갖추고 마흔 전후에 하고 싶은 대로 원없이 살아볼 수 있을테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같은 파이어족을 꿈꾸는 것은 자유다. 현대 직장인들의 로망일테니까.

더욱이 직장 생활을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왔느니,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이 사치스러운 용어가 아니었을까 한다.

다만 정년 후 많은 시간이 주어질텐데 파이어족은 아니더라도 짧아도 좋으니 ‘문화적 파이어족’을 실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파이어족에는 그다 관심이 가지 않는지만, 문화적 파이어족에는 생각이 많다. 나이가 들기 전에는 그냥 파이어족이 한없이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내는 시간들이 고통지옥이었더라도 파이어족이 안된 것을 자책하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고백하건대 젊은 날에는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지만 파이어족 같은 것을 과하게 꿈꾸지 않았을까(나 자신도 모르게). 물론 실현되지 못한 채 야속한 세월만 흘러갔지만 말이다. 직장인으로 무난하게 살아냈다는 착각으로 위안

을 받는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들 또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당하게 시간이나 때우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혼을 갈아넣어도 부족할 판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더욱이 각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편해진다는 이야기는 옛말이다. 책임감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인들에게 파이어족의 실현은 성공적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신이 편한 삶의 대명사로 통한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일상을 구가할 수 있는 개념인 만큼 직장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혹은 나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 그 자체일 것이다.

파이어족은 필자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1990년대 중반 무렵 접해보지 못한 용어였다. 그저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레이스가 펼쳐졌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 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찍부터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었다고한들 지금의 삶이 훨씬 편해졌을까 상상해 본다. 인생 1막의 ‘파이어족’은 물 건너간 듯하다. 인생 2막의 ‘문화적 파이어족’은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것이 착각이더라도.

파이어족이든, 아니든 직장인들에게는 머리아픈 시간들이 많이 괴롭히고 지나갈 터다. 분명 파이어족은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닫힌 문은 아닐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살발한 직장으로 향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간간히 파이어족의 사례가 될만한 소식은 들려온다. 무한경쟁의 사회가 강고해질수록 파이어족에 대한 삶은 더욱 간절해진다. 허황된 꿈이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닌 듯하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내하고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문화적) 파이어족의 단서를 발견하지 않을까.

기고

‘동구다움’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곤희

광주 동구 기획예산실장



#1. 지난해 여름,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E.T (East Tigers) 야구단 선수들을 삼겹살집에서 만났다. 필자에게 본인이 이 야구부 주장이라고 소개하며 자부심 가득한 눈을 빛내고 있던 대학생이 기억난다. E.T 야구단이 동구와 인연을 맺은 건 2023년부터다. 그동안 후원을 받았던 기업의 후원이 끊겨 해체 위기가 있었으나, 동구가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금사업(지정기부)으로 연습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 덕분에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열린 ‘제3회 이만수배 발달장애인 야구대회’에 첫 출전해 전국 우승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2. 광주 동구 불로동에 위치한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명명’을 찾은 한 가족이 입양 결정 전 유기견과 친해지기 과정을 수행 중이었다. ‘피스명명’은 단순한 반려견 입양센터가 아니라 생명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의 실험실을 주는 시설이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 이곳 ‘피스명명’에 데려와 입양을 연계하고 입양 전후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시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의 ‘인락사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목표에 호응하듯이 전곡에서 문외와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3. 총장로 47에 위치한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칸 예술극장이다. 지난해 개관 9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시설 노후화 등습지 않은 환경 속에서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사람과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명맥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사업을 통해 노후 영사기를 최신식 4K 영사기로 교체하고 음향 시설, 스크린을 전면 교체하면서 관람객들은 어둠 속에서 더 따뜻한 빛을 만나게 됐다. 올해로 개관 91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이제 ‘한 도시의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가치 있는 사업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스템과 결합될 때 지역이 안고 있던 절실한 문제들은 실행 가능한 해답으로 전환된다.

행정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그 마음이 제대로 달도록 길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는 바로 그 길을 넓히고 튼튼히 해 왔다. 그 결과는 광주 동구가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증명했다.

2024년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기부금 1위인 약 24억 원을 모았고, 지난해는 목표액인 50억원을 훨씬 웃돈 64억800만원을 모아 지난 3년간 누적 기부액만 97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부액을 넘어, 기부자가 ‘어디에 쓰이느냐’를 고민하며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T 야구단, 피스명명, 광주극장처럼 기부 목적과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고향사랑기부는 막대한 ‘좋은 일’을 넘어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됐다. 이뿐 아니라 기부금은 담례품을 매개로 지역 생산자·소상공인·일자리로 연결되고 있다.

동구의 담례품 참여 업체는 2024년 41개 업체·94개 품목에서 2025년 70개 업체·147개 품목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민간 플랫폼(위기키)을 비롯한 사회단체, 담례품 제공 소상공인과의 협력이 모금 확대에 큰 힘이 됐다.

앞으로 동구는 로컬의 가치를 스토리로 엮어 담례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산자의 손길과 동네의 시간이 담긴 결과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상품 소개 콘텐츠 고도화, 사진과 설명 개선, 묶음 구성 등으로 ‘동구다움’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기부자가 광주 동구를 재방문하며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확장시켜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발전 제도로 자리매김시키려 한다. 우리는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변화의 목적지를 분명히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뛰어난 지자체 관계자, 소상공인, 시민 사회단체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2026년에도 힘찬 응원을 전한다.

취재수첩

행정통합, 시·도민 우려 불식시켜야

이 산 하

정정부 차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언급된 뒤 보름 만에 특별법안의 초안과 정부 지원안까지 나왔을 정도다.

국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정, 시·도의 회 의결 정도만 원활히 이뤄지면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다시 합쳐진다는 소식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통합이 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체감이 안된다거나,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않은 통합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때문에 19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를 위한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 필요성 등을 시·도민의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주어진 인센티브안을 내놔다.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비롯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는 물론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손에 잡힐 만큼 가시적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전남도, 정치권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시·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 행정통합을 완성하길 기대해본다.

사설

전남도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성공하길

전남도가 올해부터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키로 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 주력산업인 이들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이 핵심이다.

즉, 법적·재정적 지원과 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기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환경 규제대상인 이들 산업의 친환경·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소할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의 클러스터 공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CCUS는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또 올 상반기 공모하는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대비, 고부가 전환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소재 중심 스펙트럼트 화학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해 안정적 전력 공급체제도 구축한다. 올해 1530억원 등 2030년까지 710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철강산업의 경우도 2030년까지 3983억원을 들여 금융 지원, 철강 연구개발, 고용 안정,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역 상권 회복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이들 산업의 구조적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 산업계, 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간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여수시와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위한 대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광양시, 4년 연속 인구 증가 ‘눈에 띄네’

광양시의 인구증가가 눈에 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광양시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광양시 인구는 2022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당시 15만2168명으로 2021년보다 1637명, 2023년 말에는 15만2666명으로 전년 대비 498명, 2024년에는 15만4692명으로 전년보다 2026명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도 15만5259명으로 전년보다 567명 늘어난 것이다.

4년 연속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인구증가를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함께 견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출생아 수가 다시 1000명대를 회복해 총 1159명을 기록,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아 자연증가 139명이 됐다.

또 취업 적령기인 27세부터 34세 청년층의 유입이 두드러지면서 428명의 실질적인 순전환 증가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광양시의 공이 컸다.

그동안 철강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기반 위에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지난 4년간 47개 기업으로부터 총 6조329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3381명의 고용창출을 했다.

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꿈터 운영 등 창업·주거·여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축하금,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도 병행했다.

이같은 정책은 지난 4년간 젊은 층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졌고 광양시 평균연령 44.4세로 전남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만들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복지와 주거,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인구정책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경리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 지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월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 화 체육 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독 자 권 리 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